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3872호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뉴스]
날개단 코스닥
자율·독립성 높이고
상장요건 완화
02

코스피	코스닥
2510.23 (-3.05)	829.99 (-9.52)

금리(국고채 3년)	환율(원·달러)
2.15 (+0.01)	1067.10 (+0.01) 〈9일〉

남과 북, 드디어 만났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군사당국회담은 별도 개최키로

북한이 한 달후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

이와 함께 군사당국회담도 별도 개최키로 했다. 한반도 문제는 남한과 북한이 스스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다만 우리측이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은 미지수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남북은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에 가까운 시간동안 고위급 회담, 4+4 회담, 3+3회담 등 수 차례의 회담을 거치며 향후 남북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북한은 남한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고위급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할 방침이다. 군사당국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이산가족상봉 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열린 고위급회담에 이어 추가 고위급회담, 각 분야별 회담도 별도로 개최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남북은 공동현안을 하나 하나씩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한 남북 양측은 오후 8시5분께 공동보도문 채택을 위한 종결회의를 열었다. 종결회의에는 남북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다.

2년 1개월만에 열린 이날 남북 고위급회담에는 우리측에선 조 장관 외에도 천해성 통일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참석했다. 북측에선 리 위원장 외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4대 은행 1년 새 5000명 줄어

은행원 떠난 자리, 로봇이…

비대면 강화로 인력감축 단순업무 로봇이 대체해

점포 수도 꾸준히 줄지만 효율성 좋은 소형점포 늘어

〈4대 시중은행 직원수·점포수 추이(최근 3년간)〉

은행	'17년 9월 말		'16년 9월 말		'15년 9월 말	
	직원수*	점포수**	직원수	점포수	직원수	점포수
신한은행	13468	900	13812	870	13867	900
우리은행	14299	875	15015	905	15090	967
국민은행	16904	1062	19680	1118	19608	1154
하나은행	13356	780	14480	885	14206	932
합계	58027	3617	62987	3778	62771	3953

*직원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만 집계 **점포수에 지점, 출장소, 사 무소 포함

인터넷·모바일 금융거래가 늘면서 은행들의 대표적인 대면 채널이 사라지고 있다. 올해도 시중은행들이 경영 전략으로 '디지털 금융 강화'를 내세운 만큼 직원·점포 축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로봇 은행원과 소형 점포를 도입해 빈자리를 메운다는 방침이다.

◆ 1년에 5000명 짐싸…빈자리엔 '로봇'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전체 직원 수는 2017년 9월 말 5만8027명으로 1년 만에 7.9%(4960명) 줄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전체 조회서비스에서 인터넷뱅킹 비율은 82.7%에 달했다. 금융소비자 10명 중 8명은 은행 점포를 찾지 않는 셈이다.

이에 은행들은 희망퇴직 등으로 꾸준히 직원 수를 줄여 왔다. 특히 올해는 은행권의 희망퇴직 나이가 만 40세까지 낮아지는 등 연초부터 인력 감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1978년생)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2019~2010년 임피제 전환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했다.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급증에 따라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원들이 떠난 자리는 로봇으로 메우는 추세다.

우리은행은 감정인식 휴머노이드 로봇인 '페퍼'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페퍼는 로봇 은행원으로서 창구 안내, 금융상품 추천, 이벤트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기업여신 실행 업무, 중고차 시세정보 수집, 매물 실소유자 정보 검증,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가격 적정성 점검 등 총 4개 분야 업무를 자동화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펀드추천 서비스 'S로보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금융 앱 '핀크' 내 AI 로봇 '핀고(Fingo)'를 통해 자금관리 방안 추천, 금융진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안영배 금융경제연구소 이사는 최근 국내 은행 임직원 376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4차 산업혁명시대 은행원의 고용위험 실증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은행원의 62.2%가 로봇과 AI의 도입으로 직무가 대체되는 시기를 2025~2030년쯤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점포 폐쇄 대신 '소형 점포'

국내 은행의 점포 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국내 점포수는 2015년 9월 말 기준 3953개에서 2016년 9월 말 3778개, 2017년 9월 말 3617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

〈12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

스마트시티 둘러싼 IT 각축전

美 라스베이거스서 오늘 개막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18' 개막을 이틀 앞둔 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은미 기자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18' 개막을 하루 앞두고 손님맞이로 분주했다. 밤늦은 시간까지도 전시관 준비에 한창이었다. 전시회가 열리는 컨벤션센터 주변에는 글로벌 IT기업들이 내건 옥외광고가 먼저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관련기사 6·7면〉

올해 CES 슬로건은 초연결성을 앞세운 '스마트시티'다. 기조연설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핵심 트렌드와 이슈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

기조연설의 포문은 글로벌 칩제조사 인텔의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최고경영자(CEO)가 열었다.

크르자니크 CEO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발견된 '멜트다운·스펙터' 보안 결함 문제와 대한 해명과 함께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지도 제작업체인 냅인포가 크라우드소싱 맵 구축을 중국에 확장시키기 위해 인텔과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개막일인 9일에는 CES 주관사인 CTA의 개리 샤피로 회장을 비롯해 미국 자동차제조사 포드의 짐 해킷 CEO와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로 우뚝선 화웨이의 컨슈머비즈니스그룹의 리차드 유 CEO가 마이크를 잡는다. 10일에는 마시언 젠크스 컴캐스트 케이블 사장과 존 마틴 터너 CEO, 로버트 카인클 유튜브 사장이 나선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해 소니·파나소닉·화웨이·TCL 등 전자업체, 구글·알리바바 등 인터넷업체, 보시·도요타·혼다·닛산 등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각각 보유한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전시장에서 소개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기업 CEO들의 참석도 눈길이 쏠린다. 구본준 LG그룹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각각 8년, 4년 연속으로 CES 현장을 찾았으며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처음으로 CES를 방문한다. SK그룹에서는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CES에 참가한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iun@

삼성, 사상최대 영업이익 年 54兆

총수부재로 신사업 추진 늦어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 50조원을 넘어서며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그러나 신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어 미래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9일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2017년 4분기 매출 66조원,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3조3300억원에서 23.76%, 영업이익은 29조2400억원에서 63.77% 증가한 기록이다.

〈본지 1월8일 1면 참조, 관련기사 3면〉

2017년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239조6000억원, 영업이익 53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201조8700억원에서 18.69%, 영업이익은 29조2400억원에서 83.31% 성장했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전까지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최대 기록은 2013년의 36조7900억원이었다.

사상 최대 실적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 이끌었다. 반도체(DS) 부문이 4분기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약 1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에 이어 중국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D램 가격은 85%, 낸드플래시 가격은 32.7% 인상됐다.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에서 D램 점유율 47%, 낸드플래시 점유율 35%로 확고한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가격 인상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이다.

IT와 모바일(IM) 부문에서는 신제품 공개 시기와 맞물린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3분기보다 적은 2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점쳐진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스마트폰용 소형 OLED 패널 물량 증가와 수율 개선으로 약 1조8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가전(CE) 부문 영업이익은 1조원 미만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되며 당분간 호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한편,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을 직접 견제하는 동시에 반도체 굴기를 가속해 자국 수요 상당부분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수요의 70%까지 자체 소화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현지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불러 예담(約談)을 실시했다. 예담은 중국 정부가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 전 구두로 경고하는 최후통첩의 의미를 갖는다. 예담에서는 반도체 가격 인상을 억제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기자 sesung@